

하나님의 유월절

출애굽기 11~12장



하나님께서 아홉 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차례로 내리셨지만 고집 센 애굽의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무서운 재앙을 준비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밤에 애굽 ¹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일 것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니 너희가 그 집에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너희는 양을 죽여 그 피를 집 문의 좌우 ²설주와 ³인방에 바르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열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큰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죽여서 피를 문에 발라야만 합니다.

¹ 장자: 처음에 태어난 아들.

² 설주: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해 문의 양편에 세운 기둥.

³ 인방: 문이나 창문의 위아래에 끼워 벽을 지탱하는 나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13)



22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죽여서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침까지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고 여기저기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큰아들들이 죽어서 우는 소리였습니다.
애굽 왕의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밤에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라.”

결국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은 “재앙이 넘어가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공부

참 신이신 하나님

1.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양을 먹을때 어떠한 모습으로 먹었는지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읽고 적어 보세요.
2.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심판을 하실 때,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간 집은 어떤 집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고 적어 보세요.

유월절

이스라엘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유월절 어린양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2.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보호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찾아서 아래에 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장자가 죽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7)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다음 그림들은 장자 죽는 재앙이 일어나는 밤의 어느 집 모습입니다.



태훈이 집



현미 집



동환이 집

위의 그림을 보고 각 집의 장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를 하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죽었다	죽지 않았다	이유
태훈이 집			
현미 집			
동환이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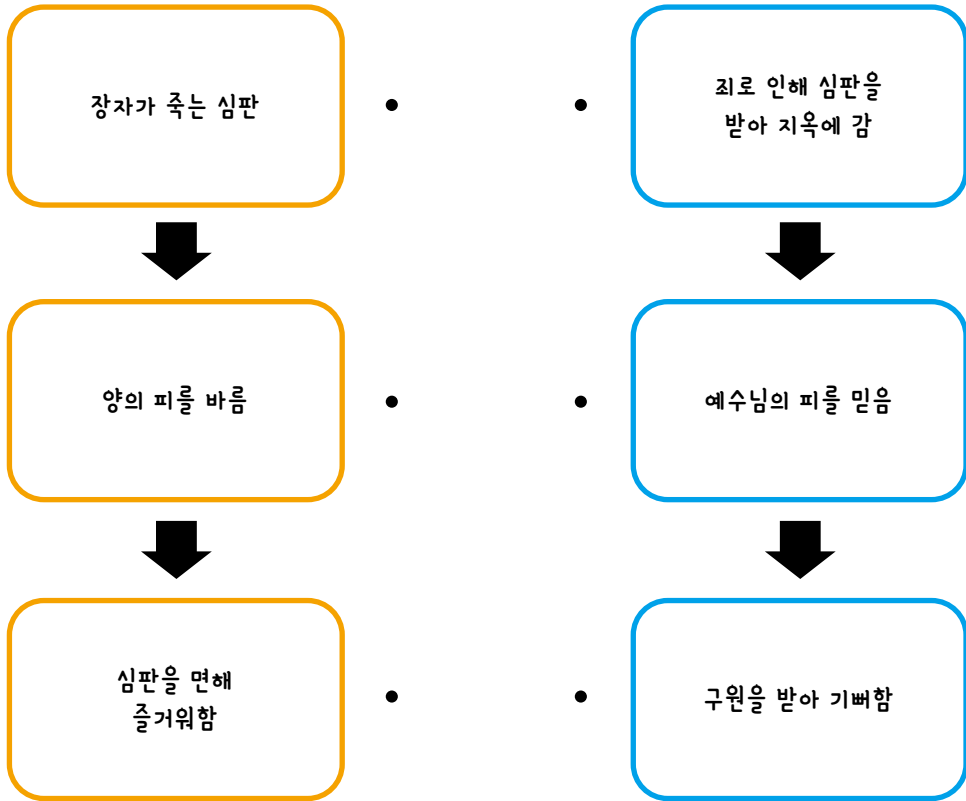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기쁘거나 불안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28)

알아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고 관련되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부모님
란

선생님
란



부활절

유월절 양처럼 돌아가신 예수님께서서는 무덤 속에 계시다가 사흘이 지난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을 부활이라고 하며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매년 춘분(3월 20~21일)후 보름달이 뜨는 날 다음 주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한 날이 정확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머리는 가시 면류관에, 손과 발은 대못에, 옆구리는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다른 두 강도의 다리를 꺾은 후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다가갔던 로마 군병은 예수님께서서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 꺾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 총독 빌라도, 여인과 제자들과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통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이 예언하고 스스로 계속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부활 후 예수님께서서 열 번 이상이나 제자들과 여인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사실로 미루어 보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고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 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실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